



포르투갈: 1분기 돼지 도축량 5% 가까이 증가

2025년 5월 19일/ 돼지 뉴스 20호/ 포르투갈.

<http://www.gpp.pt>

2025년 5월 21일 (2일 전)

INE에서 제공하고 GPP에서 발표한 2025년 1분기 포르투갈 돼지 도축에 대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,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도축된 총 돼지 수가 4.8% 증가했습니다. 이러한 증가는 2024년 1분기 962,192마리에서 2025년 1,008,272마리로 46,080마리 더 도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총 도축 중량은 5.7% 증가했는데, 이는 생산자들이 2024년보다 2025년에 평균 도축 중량이 더 높은 돼지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총 중량은 2024년 84,742.5톤(평균 88.1kg)에서 2025년 89,596.3톤(평균 88.9kg)으로 증가했습니다.

2025년 1분기에는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돼지 새끼 도축량이 14%나 감소하여 36,441마리가 줄었습니다. 2024년 1분기에는 돼지 새끼 259,879마리가 도축되었지만, 올해는 223,438마리였습니다. 도축 중량은 2024년 1,854톤에서 2025년 1,537.7톤으로 15.1% 감소했습니다. 평균 중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. 포르투갈에서 돼지 새끼를 구워 먹을 때의 일반적인 무게인 6.88kg으로 250g이 줄었습니다.

도태되는 번식용 가축의 경우, 2025년에는 12,028마리가 도축되었고, 2024년에는 8,374마리가 도축되어 43.6% 증가했습니다. 총 중량은 2024년 1,225.7톤(평균 중량 146.4kg)에서 2025년 1,823.9톤(평균 중량 151.6kg)으로 48.8% 증가했습니다.

2025년 1분기에 총 1,243,738마리의 돼지가 도축되어 식용으로 승인되었는데, 이는 2024년 1,230,445마리의 돼지가 도축된 것에 비해 1.1% 증가한 수치입니다. 총 도축 중량은 92,994톤으로, 2024년 소비 승인량 87,822톤보다 5.9% 증가했습니다.